



화순전남대 병원에 문을 연 '여미아트홀' 갤러리에서는 27일부터 11월 20일까지 개관 기념전이 열린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화순 전남대병원에는 여미아트홀 이 있다

사막한 병원에 아름다운 음악이 흐른다. 벽에 걸린 그림은 보는 이들에게 편안함을 전해준다.

화순 전남대병원(원장 범희승)에 소박한 문화 공간이 문을 열었다.

1층 로비에 등지를 둔 공간은 화순의 옛 이름을 따 지은 여미아트홀. '여미'는 작은 개울가의 쉼터라는 뜻도 갖고 있다.

여미아트홀은 아담한 갤러리와 작은 공연을 열 수 있는 무대, 피아노가 갖춰진 공간으로 꾸며졌다. 또 병원을 찾는 이들이 담소를 나누며 간단한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도 함께 마련됐다.

27일 정식 개관하는 갤러리에서는 기념전으로 '현대 미술의 흐름전'이 열린다. 갤러리 기획을 맡고 있는 서양화가 정순이씨가 꾸민 전시로, 광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미디어 아트 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초대했다.

환자 가족 휴식처 1층 로비에 등지 갤러리·작은 무대 갖춘 연주 공간 현대미술의 흐름전 등 다양한 행사

단순한 평면 작품을 벗어나 세롭고 재미있는 작품들을 선보이고 싶다는 생각에 마련한 전시회다. 특히 일반인들이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미디어 아트 작품을 적극 소개하고, 우리 지역에도 참신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작가군들이 있다는 것도 알리기 위한 자리이기도 하다.

참여작가는 김영태·김일권·김재성·나명규·박상화·방우승·손봉채·신철호·신호운·이이남·정운학·조대원·주미희씨다.

오는 11월 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가 마무리 되면 이후에

는 정씨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로 상설전을 열 계획이며 의사·간호사 등 병원 가족들의 전시회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지역의 유망한 젊은 작가 초대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씨는 "하루 유동인구가 1천여 명에 달하는 전남대 병원을 찾는 이들에게 마음의 안식을 주고 문화 향기를 전하기 위해 다양한 전시회를 꾸릴 예정"이라며 "그림 감상이 특별히 시간을 내야 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싶다"고 말했다.

그랜드 피아노가 놓인 작은 무대에서는 다양한 연주회가 열릴 예정이다.

지금까지 이곳에서는 클래식 연주회, 바이올린·첼로·피아노 트리오 연주회, 아가펠라 '아우름'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가 마련됐다.

한달에 한 차례 정도 음악회를 진행해 왔고, 아트홀 정식 개관을 계기로 연주 기회를 더욱 늘릴 계획이다. 의사와 간호사 등 클래식 연주에 일가견이 있는 직원들이 꾸미는 무대도 계획중이다.

범희승 원장은 이번 개관전 초대극에서 "의료 서비스는 폭넓은 의미에서 환자와 가족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문화적 활동이기도 하다"며 "여미아트홀이 사랑받는 문화공간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61-375-3006.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이보다 좋은 디자인 수업 있나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재단

화순 능주고생 400명 현장교육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가장 효과적인 디자인 수업입니다." 백화점 세일매장 같았던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학생 단체관람이 디자인 교육의 장으로 업그레이드됐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이하 재단)은 지난 23일 화순능주고교(교장 신장식) 학생 400여 명을 위해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재단 조인호 전시부장이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디자인과 현대 사회문화 관계'를 주제로 1시간여 동안 전시 기획 등을 학생들에게 들려줬다.

이번 전시에 대한 설명과 디자인의 이해 등 학생들이 관람에 앞서 알아야 할 지식을 '워밍업'하는 자리였다.

능주고는 또 학생들에게 관람 보고서를 제출하게 해 이번 디자인비엔날레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했다.

능주고 권광민 교감은 "해마다 학생들과 함께 비엔날레 전시장을 찾아왔지만 그동안 보고서만 제출하는 방식이어서 다소 부실하다는 느낌이였다"면서 "전문가의 해설을 통해 아이들이 이번 전시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재단은 또 일선 학교 단체 관람객을 위해 전시관련 요약 자료를 미리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반별로 동선을 짜 도슨트를 배치하는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조인호 전시부장은 "일선 학교의 요청이 있으면, 이 같은 사전 교육을 더욱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62-608-4224.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지난 23일 능주고 학생들이 제3회광주디자인비엔날레 '살핀'전 큐레이터 홍정구(맨 오른쪽)씨로부터 작품 설명을 듣고 있다. <광주비엔날레재단 제공>

한·일 아름다운 산천 카메라 앵글에

한·일 사진 교류전
31일까지 광주시청

한국과 일본의 아름다운 산천이 카메라 앵글에 담겼다.

양국의 자연을 주제로 활발한 전시회를 열고 있는 한일자연사진가회(한국회장 서현정)가 일본(9월1일~9월6일·오사카시립미술관) 전시에 이어 오는 31일까지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제29회 한·일사진교류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고해주, 구영용, 김복용, 김용복, 노종선, 박인숙, 박정수, 백학기, 서현정, 양숙자, 조종식, 진춘호 등 회원 25명이 참여했다.

이들 한국작가들은 노고단, 순천만 등지의 사계절을 담은 작품과 해바라기, 꽃무릇이 핀 남도의 자연을 포착한 작품을 선보인다. 일본 작가들은



서현정 작 '여신(女神)의 미'

후지산, 북해도의 설경을 선사한다. 백학기씨는 꽃잎에 쌓인 꽃술의 신비로움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화신'을 전시하고, 구영용씨는 강물에 비친 꽃무릇의 환상적인 빛깔을 담은 '꽃무릇과 초목의 만남'을 출품했다.

또 노종선씨는 해바라기가 만개한 등관의 풍요로움을 형상화한 '해바라

기'를 내놨고, 양숙자씨는 붉게 물든 고운 단풍을 섬세하게 표현한 '가을 빛'을 전시한다.

한편 지난 1991년 결성된 한일자연사진가회는 해마다 1~2차례 교류전을 통해 가깝고도 먼 관계인 한일간의 자연 풍광을 양국에 소개하고 있다. 문의 010-6679-5777.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유럽문화예술학회 창립

31일 전남대서... 유럽 문화 연구 활동

'유럽문화예술학회'(학회장 김대길)가 오는 31일 오후 1시30분 전남대 예술대학 세미나실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유럽문화예술학회는 전남대학교

김대길 예술대학장 등 국내 소장파 연구자들이 참여해 유럽 문화를 연구하게 된다.

창립에 맞춰 열리는 학술대회에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김대길 회장

김대길 회장은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이미지 읽기", 송실대 이광명 교수는 '서구 근대 이성과 미적 이상

의 문제', 동덕여대 심상용 교수는 '글로벌 아트 마켓의 상황과 반성'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한다.

또 전남대 민진영 교수, 조선대 박정기 교수, 광주비엔날레 재단 조인호 전시부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김대길 학회장은 "광주가 문화예술은 물론 학술적인 차원에서도 명실상부한 문화중심도시가 될 수 있는 기반조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문의 062-530-2543.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체육발전기, 동국영호 문화기부

기아타이거즈 V10 달성

기아타이거즈 2009 한국시리즈 우승을
팬 여러분과 더불어 이 기쁨을 함께합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KBSF

기아타이거즈

한국교육연구서비스

대한체육회